

## 48.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다

신양고백

찬      송 :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송가 497장)  
 기      도 : 맑은이  
 말      씀 : 사도행전 11장 19-26절

## 말씀묵상

스데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자, 제자들과 성도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몇 사람은 그곳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도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의 제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까?

## 1. 복음의 대상을 넓히는 도전이 있었습니다(20-21).

하나님은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야 했을 때, 성도들의 마음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에 도착한 어떤 성도들은 이 고난을 또 다른 선교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순종이었습니다.

## 2. 신앙을 돌보기 위한 교회의 협력이 있었습니다(22-24).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안디옥 교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파견하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기회를 따라 구체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진 바나바는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의 협력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안디옥 교회와 협력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 3. 신앙 교육을 위한 사역자의 협력이 있었습니다(25-26).

바나바의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바울과 협력하는 사역을 계획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복음으로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와 협력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일 년 동안 모임을 가지며 사람들을 가르쳤고, 이때부터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 맺는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모습인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 말씀적용

내가 알고 있는 해외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됩니다.

##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1. 주일헌금

이번 주 주일헌금으로 필리핀선교(강경진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 2. 예배안내

교회는 좌석수의 50%까지 예배 인원이 허용되어, 20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 주일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대림절

오늘은 대림절 첫째주일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되시기 바랍니다.

## 4. 노회 임원 및 화해·수습위원회의 공문 (사본: 로비에 비치)

경기노회 제184회 임원회와 화해·수습위원회의 요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임 또는 해약을 위한 모든 서명을 즉각 종지하기 바랍니다.
- 사회법에 제기된 고소·고발 건을 모두 취하하기 바랍니다.

## 5. 2022년 교회 봉사자 모집

2022년 교회학교 교사(어린이부, 청소년부)와 방송실을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현신하실 분들은 교역자들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6. 2022년 부서별 예산안

2022년 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다음주일(5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2022년 교회요람 준비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가족사항)가 달라진 분들은 목자 혹은 교역자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8. 예배위원안내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 2면 하단과 PPT 화면의 예배위원 안내를 확인 하셔서,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목장별 전화심방

매주 화요일(1지역)과 목요일(2지역)에 목장별로 전화심방이 있습니다.

## 10. 현금안내

온라인 현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 둔전교회를 섬기는 이들

창립 1904년

## 담임 목사 : 임창세

협동목사 : 윤성민

부목사 : 천광우 정진영

교육전도사 : 신새벽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지휘자 : 이영준

반주자 : 임귀희 임미리 임정임

김성혜 이하림

제117권 제 48호

2021. 11. 28

The ni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 온혜를 나누는 교회 (고후 6:1-2)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 교회**  
 DOON JEON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 031)751-7230  
[www.doonjeon.kr](http://www.doonjeon.kr)

인도 : 임창세 목사

\* 표는 일어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기원	인도자
※찬송	15장

2·3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임재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교독문	115. 구주강림 1
참회기도	다 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112장
기도	1부: 최인선 집사 2부: 심은영 권사
성경봉독	창세기 3장 14-21절(구약 3면)
찬양	마라나타
말씀	구약의 크리스마스(1) 여자의 후손

봉사위원

11·12

	11월 28일	12월 5일	12월 12일	12월 19일
예배기도	1부 2부 3부	최인선 심은영	안혜자 안순조	정귀자 최영란
				이말자 윤종찬
				비대면 영상예배
헌금위원		(11월) 1부 : 니차금 (12월) 1부 : 신연호 (11월) 운종찬 전옥자	2부 : 결정환 2부 : 김용수	
안내위원				

결단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다같이
현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송영	행복	다같이
※축도		임창세 목사
수요예배 저녁 7시 30분	금요십야기도회 저녁 9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말씀 : 천광우 목사	말씀 : 임창세 목사	둔전아침목상

삶의 옥합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6:20)

◆ 십일조

강윤지 강인식 남효정 양웅모 윤종찬 윤철형 이군자 이만순  
이상설·박옥년 이인임 정귀자 정재현 조명숙 백승환·최미연 최인선  
최충균·송애련

◆ 감사현금

곽형순 기현정 김주용 김현대·김정은 남효정 박명원·윤영입 송승예  
양웅모 윤종찬 최충균·송애련

◆ 추수감사현금

임창세·주리애 강경희·안혜자 곽형순 김용수·이미숙 김정규·정영숙  
김정예 김현대·김정은 김현섭·정재하 김효영·정순진 나차금 남효정  
박경희 박기자 박상민·김영옥 박심원·윤관순 박연분 박연우 박정아  
박춘화 박희군·이혜영 백경화 백승환·최미연 서인순 신연호·안상분  
안순조 안홍욱 양웅모·김영주 유병주 유병희 유향순 윤종찬  
이희·임연자 이대희·임미라 이만순 이말자 이상설·박옥년 이소임  
이온유 이인임 이지유 임근실 임완민·곽삼화 정귀자 정장환 정종언  
정진영 조명숙 조병운·박영애 주영순 주종찬 차성희 천준영·이태화  
최광순 최영란 최영애 최운교 최인선 최진수 한규봉 한성임 한춘우  
홍지현 황미선 무명3

◆ 선교현금

최진수

◆ 건축현금

한춘우

주일현금	십일조	감사현금	추수감사현금	건축현금	선교현금
458,000	3,893,000	380,000	6,103,000	50,000	100,000

\* 온라인현금자 명단은 지난주일 오후 2시까지 입금자입니다.  
그 이후 현금하신 분들은 다음주에 표기됩니다.



<2021년 선교후원>

100주년 기념 해외 선교 : 임만호(캄보디아 프놈펜 둔전교회)

해외 선교사 : 여기도(중앙아시아), 강경진(필리핀)

김영생(인도네시아), 홍콩성소신학교(중국목회자 선교)

국내 미자립교회 : 군산서수제일교회(이창구), 말씀위에 세운 교회(최석원)

국내 기관후원 : 칼 바르트센터, 지구촌구호개발연대

남산도회 선교 : 은행골 우리집(김광수)